

# 구도심 가로경관에 대한 집단별 인식차이 연구 -김해시 구도심을 중심으로-

강혜원<sup>1</sup>, 서유석<sup>2</sup>, 고인석<sup>3\*</sup>

<sup>1</sup>부산대학교 건축학과, <sup>2</sup>창원대학교 건축학부, <sup>3</sup>인제대학교 건축학과

##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Opinion among Groups regarding the Street Landscape in the Old Urban Center -Focused on the Old Urban Center in Gimhae City-

Hye-Won Kang<sup>1</sup>, You-Seok Seo<sup>2</sup> and In-Seok Ko<sup>3\*</sup>

<sup>1</sup>Department of Architecture, Pusan National University

<sup>2</sup>School of Architecture,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sup>3</sup>Department of Architecture, Inj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구도심 상업가로를 활성화함에 있어서 사용자 집단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김해시 구도심 상업가로의 사용자인 상인, 내국인 방문객 그리고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가로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세 집단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음이 확인 되었다. 그러므로 상업가로의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인들의 의견만 반영하기보다는 활성화에 필수적인 방문객들의 의견도 다양한 방법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 나타난 인식차이는 조정과 합의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다른 상업가로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opinion among the user groups in revitalizing the old urban center. To this end, the old downtown commercial street users in Gimhae traders, local and foreign visitors were surveyed. To examin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chi-square test was performed. There were differences of opinion among three groups about the present condition and improvement of the street. Therefore, in activating the old commercial street we should reflect not only the opinions of merchants but also those of visi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intended to be used as a reference to the revitalization of old commercial street.

**Key Words** : Chi-Square Test, Commercial Street, Differences of Opinion, Gimhae City, Old Urban Center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매력이 있다고 한다. 그 지역에 적합한, 특색이 있는 도시공간이 긴 시간을

통하여 잘 적응된 형태로 존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도시들은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해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장소가 전통성을 상실하거나,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개성을 돋보이게 하는 이른바 도시의 정체성(identity)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과거 지방도시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구도심 지역은

본 논문은 2011학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11 Inje University research grant)

\*Corresponding Author : In-Seok Ko(Inje Univ.)

Tel: +82-55-320-3688 email: [isko@inje.ac.kr](mailto:isko@inje.ac.kr)

Received September 23, 2013 Revised October 9, 2013 Accepted October 10, 2013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지속되어온 도시개발, 협소한 가로와 낡고 오래된 건축물로 인한 불편함 그리고 높은 지가로 인한 재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도시 중심지로서의 매력을 상실하고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까지 진행하여온 가로활성화사업들의 큰 문제점은 사업시행 후에 유지·관리가 안 되는 것이었다. 도시의 가로경관을 형성하는 것은 도로, 가로시설물 등 공적인 영역과 건물, 간판 등 사적인 영역의 요소로 형성이 되므로 가로의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건물의 소유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의 계획과 시공 그리고 유지·관리의 단계에서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아주 필요하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최근에 시행되는 지역 환경개선사업은 주민참여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지역 거주자인 상인들로서, 상업가로 활성화에 필요한 방문객들은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로의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방법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상인들은 대개 건물의 소유주이거나 경제행위의 주체로서 가로의 활성화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밀접한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방문객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로경관이 개선될 경우 가로의 활력이 저하될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이 방문객들이 원하는 방향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확인 결과 두 집단의 의견이 다를 경우는 서로를 조화롭게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도심가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대상지와 관련이 있는 집단 간의 의견 차이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 도심 공간에 대한 집단 간의 의견차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로환경을 개선함에 있어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 1.2 연구방법

이 연구의 주요연구방법은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이다. 설문조사는 내국인 방문객(이하 ‘내국인’이라 칭함)과 외국인 방문객(이하 ‘외국인’이라 칭함) 그리고 거주민인 상인을 대상으로 2010년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 동안에 실시되었다. 사용자설문조사는 사전에 설문조사 훈련을 거친 조사원에 의해 연구대상지의 보행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김해 외국인인력지원센터의 협조를 통해 체류인구가 많은 나라 순으로 6개 국어(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지에 관하여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특성을 알아보고, 거리의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집단별 의견의 차이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 카이제곱검정을 사용하였다. 카이제곱검정은 각 집단 간 빈도 차이를 검정하는 기법이다. 분석에 사용한 통계분석 패키지는 SAS 9.2를 사용하였다.

## 2. 대상지현황

### 2.1 대상지 위치 및 주변 현황

대상지역은 김해 구도심의 대표적 상업지역인 가락로 주변이다. 김해의 구도심은 장유, 내외동, 삼계동 등의 신도시개발로 주민의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도심의 공동화가 심화되었다. 가락로를 중심으로 하는 구도심의 상업지역은 상주인구의 감소, 좁은 도로로 인한 교통 혼잡과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쇼핑객이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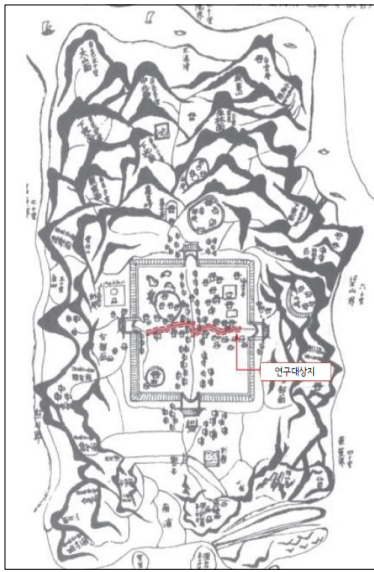
[Fig. 1] Location and neighborhood context [1]

김해는 흔히 ‘가야 500년의 고도’, ‘2000년 역사 도시’ 등으로 불린다. 삼국유사의 ‘가락국기’ 편에 보면 서기 42년에 수로왕이 김해지역에 가락국을 창건한다. 가야연맹의 맹주국이 된 가락국은 풍부한 철기문화로 동북아 일대 해상교역의 중심국가로 성장한다[2]. 김해시는 이러한 가야시대부터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대상 가로는 조선시대 읍성의 동문과 서문을 연결하는 주요 가로로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근에는 수로왕릉, 구지봉 등 김해의 주요 역사문화자원이 집중 분포되어 있어, 김해시는 이러한 지역들을 잘 정비하여 이를 김해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자원인 ‘가야의 거리’로 명명하여 활용하고 있다[3]. 그러나 이 거리는 휴게와 상업시설이 부족하므로 구도심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시너지효과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지는 남북을 관통하는 가락로, 호계로와 직접

교차하고 있고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우수하고 해반천과 호계천을 연결하는 동서가로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가로는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시설과 점포들이 다수 입점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김해와 주변 도시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가 되면서 이국적인 풍경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근래의 일인 만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이들의 상업 활동이나 특정한 공간에 밀집하는 현상이 아직은 국내에서는 새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Fig. 2] Gimhae, Gojong the 3rd year [4]

## 2.2 대상지 내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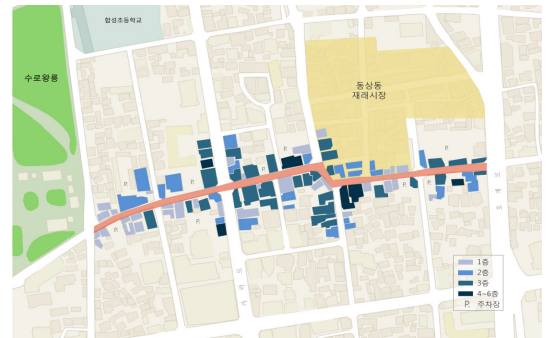
연구대상지는 일반적으로 6~8m의 폭을 가지는 비교적 협소한 도로로 구성되어있고 대부분 보·차도 구분이 없으며 불법주차와 노점상, 불법적치물들, 양방향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보행환경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주변의 건물은 1~6층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2~3층이 건물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수로왕릉의 서편에 위치 한 구간은 가로가 협소하며 건축물 노후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입면불량 및 불법노후건축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단층 슬레이트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은 협소한 공간에도 불구하고 보차도 분리로 인해 시각적으로 더욱 협소하게 느껴지고 영업을 하지 않는 상가가 많아 다소 낙후된 분위기 연출하고 있다.



[Fig. 3] Present landscape of the street

김해 동상동 재래시장과 인접해 있는 구간은 다른 구간에 비해 건물입면이 대체로 양호하며 가로변 건물은 1~6층까지 다양한 층수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이곳도 상가뒤편의 경우 비어있는 점포가 많아 범피의 우려가 높다.

대상가로의 점포현황을 Table 1에서 보면 음식점, 주점, 분식점, 레스토랑 등 식음료관련 점포가 26.3%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의류 및 잡화가 뒤를 잇고 있다. 다음으로 미용·화장품관련, 휴게(오락), 통신판매 등의 점포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심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생활필수품 점포가 13군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재래시장이 인근에 있기도 하지만 각국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점이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Fig. 4] Stories of buildings in the street

대상가로변에 소재한 외국인 대상 가게는 32개로 조사되었으며, 외국인의 증가추세에 따라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상점은 외국인들의 분포와도 무관하지 않는데 의류(중고의류취급점 포함)나 잡화, 미용, 핸드폰 및 통신(전화카드판매점 포함)관련은 국적과 무관하게 서비스가 가능한 업종이다. 반면, 음식점과 식료품점은 특정한 국가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곳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된다. 대상가로에

부산이나 양산, 창원에서 온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것도 다수의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에는 중국인 점포가 많은 것에 비해 대상 지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등 다양한 국가출신의 상인들이 운영하는 식료품, 잡화점이 많이 입점하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1].

[Table 1] The 1st floor use of the around buildings [1]

Use	Numbers of the stores (%)	
Food and beverage	39	(26.3)
Apparel	31	(20.9)
Dwelling	14	(9.4)
Beauty· Cosmetics	13	(8.8)
Amusement	9	(6.1)
Cellular phone · electronics	8	(5.4)
Educational facilities	6	(4.1)
Clinic	6	(4.1)
Parking lot	4	(2.7)
Etc.	18	(12.2)
Total	148	(100.0)

### 3. 가로경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 3.1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연구대상지역의 거리조성에 관한 설문에 응답한 내국인과 외국인 그리고 상인은 각각 60, 55, 57명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내국인과 상인은 여자가 60%이며, 외국인은 남자가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서 남자가 많은 것은 대상 가로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외국인 근로자들로서 주로 남자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는 내국인과 외국인은 젊은 층이 많았으며 상인은 중년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가로에 대한 전체 방문횟수로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5회 이상 방문이 88% 로 나타났다. 대상지 내에서의 체류시간을 묻는 질문에서는 내국인은 1시간 이하로 대상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외국인의 경우 1시간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의 경우 최근 들어 외국인들의 점유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체류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의 2배 이상이 됨을 알 수 있다. 체류목적에 있어서도 쇼핑 외에도 정보수집, 만남과 약속, 건강치료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 이 거리가 쇼핑과 만남, 종교 활동 등 의 중심지임을

알 수 있었다.

#### 3.2 가로경관 현황에 대한 인식 비교

가로경관에 대한 일반적평가의 응답이 내국인과 외국인 그리고 상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가로경관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문항에서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이 65.44로 유의수준 0.05에서 p값(유의확률)이 <.0001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문항의 빈도를 보면 내국인과 상인은 ‘나쁘다’와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많은 반면 외국인은 ‘보통이다’와 ‘좋다’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3, 4의 항목은 5점 척도로 조사한 항목이나 카이검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대빈도수가 5미만인 셀은 묶어서 3점 척도로 검정을 실시하였다. ('매우 나쁨'과 '나쁘다' 그리고 '매우 좋다'와 '좋다'를 묶는 등), 다른 문항에서는 기대빈도수가 5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도 내용상 셀끼리 묶기가 어려워 묶지 않고 카이검정을 실시하였음을 밝혀둔다.

[Table 2] General assessment for the street landscape unit : N(%)

	Native	Foreigner	Tadespeople
Bad	30 (50.0)	5 (1.0)	27 (49.1)
Usual	29 (48.3)	19 (37.3)	26 (47.3)
Good	1 (1.7)	27 (52.9)	2 (3.6)
$\chi^2(p)$	65.44 (p값<.0001)		

[Table 3] Convenience of public transportation unit : N(%)

	Native	Foreigner	Tadespeople
Satisfaction	22 (36.7)	28(42.1)	24(52.8)
Average	30 (50.0)	21(40.4)	23(31.6)
Good	8 (13.3)	10(17.5)	4(7.55)
$\chi^2(p)$	4.756(0.313)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다는 문항에 대한 카이검정 결과 p값(유의확률)이 0.313으로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국인과 외국인 그리고 상인은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다는 문항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를 보았을 때 대중교통의 이용이 대체로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Convenience of parking unit : N(%)

	Native	Foreigner	Tadespeople
Satisfaction	7 (11.7)	12(21.1)	9(17.0)
Average	25(41.7)	23(40.4)	32(60.4)
Dissatisfaction	28(46.7)	22(38.6)	12(22.6)
$\chi^2(p)$	9.049(0.060)		

주차장 이용이 편리하다(규모, 주차비)는 문항에 대한 카이검정 결과 p값(유의확률)이 0.060으로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내국인과 외국인 그리고 상인은 이 항목에 대하여 같은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를 보았을 때 주차장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과 불만족 사이 정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도시의 구도심은 대체적으로 불만이 많은데, 이와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주변에 공영과 사설 주차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 Unpleasant element in the street unit : N(%)

	Native	Foreigner	Tadespeople
The external of the building	10 (16.7)	1 (1.9)	10 (17.5)
Signs / advertising	8 (13.3)	6 (11.3)	3 (5.3)
Pavement	8 (13.3)	6 (11.3)	8 (14.0)
Street furniture	11 (18.3)	11 (20.8)	11 (19.3)
The design of the store	11 (18.3)	1 (1.9)	3 (5.3)
Landscape	4 (6.7)	1 (1.9)	5 (8.8)
None	3 (5.0)	25 (47.2)	4 (7.0)
Etc.	5 (8.3)	2 (3.8)	13 (22.8)
$\chi^2(p)$	63.63(p값<.0001)		

연구대상지주변에서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항의 카이제곱검정결과 검정통계량이 63.63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p값(유의확률)이 <.0001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문항의 빈도를 보면 내국인은 건물의 외형과 가로시설물, 상점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으로 많았다.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없다’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가로시설물이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간판/광고물과 바닥포장에 대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상인은 건물의 외형, 가로시설물, 기타가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라 응답하였다.

간판/ 광고물의 경우 상인은 마음에 들지 않는 비율이 5.3% 로 낮으나 이용자인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은 각

각 13.3%, 11.1%로 높다. 이는 간판/광고물이 단순한 광고의 차원을 넘어 도시 환경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경관 요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로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는 요소에 대한 문항의 검정결과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이 40.90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p값(유의확률)이 0.0002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문항의 빈도를 보면 내국인은 불법주차 차량과 보행 공간 협소, 교통편이 불편을 주는 요소로 많았다. 외국인은 보행 공간 협소와 교통편이 많았으며, 건물외관, 보행공간 협소가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상인은 불법주차 차량, 보행 공간 협소, 거리의 청결상태, 기타의 순서로 나타났다.

내국인, 외국인, 상인, 모두 좁은 보행공간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국인과 상인은 불법주차 차량으로 가장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외국인은 교통편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인데, 이는 외국인들이 김해시 교외의 공장지역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타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6] Uncomfortable element in the street

	Native	Foreigner	Tadespeople
Signs	1 (1.7)	1 (1.9)	0 (0.0)
Illegally parked vehicles	15 (25.0)	7 (13.2)	15 (26.3)
The external of the building	5 (8.3)	7 (13.2)	2 (3.5)
Narrow pedestrian space	13 (21.7)	16 (30.2)	13 (22.8)
Street clean	4 (6.7)	3 (5.7)	12 (21.1)
Street furniture	8 (13.3)	2 (3.8)	2 (3.5)
Transportation	10 (16.7)	13 (24.5)	0 (0.0)
Etc.	4 (6.7)	4 (7.6)	13 (22.8)
$\chi^2(p)$	40.90 (0.0002)		

### 3.3 가로경관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 비교

가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도입해할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검정결과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이 56.54로 유의수준 0.05에서 p값(유의확률)이 <.0001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문항의 빈도를 보면 내국인은 가로시설물, 문화 공간, 녹화시설, 이벤트광장, 순으로 많았으며, 외국인은 녹화시설, 수경시설, 문화 공간, 이벤트광장 순으로, 그리고 상인은 가로시설물, 녹화시설, 건축물 순으로 나타났다. 내국인과 상인들은 가로시설물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녹화시설과 수경시설의 도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Element to be introduced for activating the street unit : N(%)

	Native	Foreigner	Tadespeople
Greenery	17 (14.4)	24 (21.8)	14 (16.9)
Event Space	16 (13.6)	13 (11.8)	4 (4.8)
Water features	8 (6.8)	21 (19.1)	3 (3.6)
Street furniture	31 (26.3)	9 (8.2)	36 (43.4)
Art Sculpture	8 (6.8)	8 (7.3)	1 (1.2)
Events	7 (5.9)	6 (5.5)	4 (4.8)
Building	11 (9.3)	8 (7.3)	13 (15.7)
Cultural space	20 (17.0)	18 (16.4)	7 (8.4)
Etc.	0 (0.0)	3 (2.7)	1 (1.2)
$\chi^2(p)$	56.54 (p값<.0001)		

[Table 8] Way of vehicular traffic control unit : N(%)

	Native	Foreigner	Tadespeople
Event day closed	19 (31.7)	22 (26.5)	23 (41.8)
Weekend closed	12 (20.0)	37 (44.6)	14 (25.5)
assigned time open	9 (15.0)	8 (9.6)	7 (12.7)
service vehicle only	17 (28.3)	9 (10.8)	7 (12.7)
Etc.	3 (5.0)	7 (8.4)	4 (7.3)
$\chi^2(p)$	18.53(0.0176)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차량통행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하여 기존의 차도를 유지하고 특별한 날에만 차량을 통제(특별한 날 통제), 기존의 차도를 유지하고 주말만 차량 통제(주말 통제),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하고 보행자가 뜬 특정시간대에만 차량 출입(특정 시간대 출입),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하고 특정시간대 서비스 차량만 출입(서비스차량 출입) 4가지의 항목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카이제곱 검정결과 검정통계량이 18.53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p값(유의확률)이 0.0176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문항의 빈도를 보면 내국인은 특별한 날 통제, 서비스차량 출입, 주말 통제 순으로 원하며, 외국인의 경우 주말과 특별한 날의 통제가 우선순위이다. 상인은 특별한 날 통제, 주말 통제를 많이 원한다.

차량통제방식에 대하여 통계적으로는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 후에 서비스 차량 출입, 특정 시간대 출입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보다는 특별한 날 통제, 주말 통제와 같은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보수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다. 연구대상지의 특성을 살린 차량통행방식 구현을 위해서는 가로주변의 토지이용의 변천상을 살피며 문제점을 파악·관리하는 한편, 가로 주변

에 존재하고 있는 자투리 공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가로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축제 및 행사 등을 차 없는 거리 사업과 연계하여 기획할 필요가 있다.

#### 4. 결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해온 구도심 상업가로의 활성화사업들은 가로경관의 유지·관리와 사회·경제적 지속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들을 보여주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의 계획과 실행 그리고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대개가 지역 상인들로서 거리의 방문객들은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상인들은 경제적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 방문객, 즉 손님들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겠지만, 과연 상인들이 원하는 바가 방문객들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는 김해시에 소재한 구도심의 가로에 대하여 가로이용자 즉 내국인과 외국인 보행자집단, 그리고 상인집단의 가로경관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조사·분석한 것으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대상지의 전반적인 가로경관 현황에 대한 인식에서 세 집단 간의 인식차이가 드러났다. 가로의 일반적인 현황에 대하여는 내국인과 상인 집단은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고, 외국인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가로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내국인은 상점디자인, 가로시설물이 같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집단은 ‘없다’는 의견이 다수이고 다음으로는 가로시설물에 부정적이었다. 상인은 기타, 가로시설물, 건물의 외형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로경관의 개선방향에 대해 서로 차이가 났는데, 가로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사항에서 내국인, 상인은 가로시설물을 외국인은 녹화시설을 가장 우선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가로 구성요소의 현황에 대한 집단별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가로 구성요소를 개선하는 것이 반드시 가로정비의 우선 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차량통행방식의 개선에서 선호하는 응답을 보면 내국인과 상인은 특별한 날만 차량을 통제하고, 외국인 주말 차량통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차이가 났다. 그러나 공통점은 보행자전용도로로

의 전환보다는 기존의 차량통행을 허용하면서 특별한 경우에만 차량을 통제하자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아직도 보행의 쾌적성 확보를 위하여 차량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읽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차량의 속도 저감, 불법주차억제 등을 통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본엘프(woonerf)도로 기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상인들과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는 방문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로의 방문객들은 불특정 다수이므로 이들을 대표할 인물들을 선정하기가 어렵고, 방문객들은 가로활성화와 이해관계가 적으므로 가로경관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지도 않는다. 현재로는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은 설문조사 정도이다. 사업의 계획과 실행 그리고 유지·관리단계에서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방문객 참여의 장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 축제성격의 강화, 인센티브 요소의 도입 등으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워크숍 등에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운영위원회에 방문객 대표의 참석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글은 특정지역가로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한 연구로서의 한계성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이 결과와 비교하여 보다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유사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관련 집단 간의 인식차이를 고려하여 방문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References

- [1] HyeWon Kang, InSeok Ko, "A Study on the Using Behavior of the foreign workers on the Street in Gimhae"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29 n.7 07, p189-197, 2013
- [2] JungHun Kim, Historic Cultural Sightseeing City, Gimhae,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0&contents\\_id=5441](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0&contents_id=5441)
- [3] InSeok Ko, YooSeok Seo, JangMin Lee, SoonDeok Kang, JongGook Yoon, Gimhae Urban landscape plan, p.322, Gimhae city, 2013
- [4] InSeok Ko, SinGoo Woo, MalSoon Min, YooSeok Seo, JaeHyuk Yang, SoonDeok Kang, Gimhae Urban landscape plan, p.371, Gimhae city, 2005

### 강 혜 원(Hye-Won Kang)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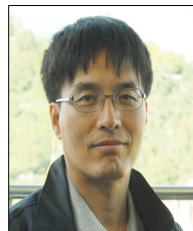


- 2009년 2월 :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축공학석사)
- 2013년 2월 :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박사수료

<관심분야>  
도시경관, 도시재생

### 서 유 석(You-Seok Seo)

[정회원]



- 1990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석사)
- 1994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박사)
- 2004년 8월 ~ 2009년 7월 : 누리사업 지능형홈 건축사업단장
- 2011년 8월 ~ 현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 1996년 3월 ~ 현재 : 창원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

<관심분야>  
건축계획, 도시설계, 도시경관

### 고 인 석(In-Seok Ko)

[정회원]



- 198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석사)
- 1989년 1월 ~ 1992년 12월 : 종합건축사사무소진원·토우 과장
- 1993년 1월 ~ 2000년 2월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법건축 부소장
- 2000년 3월 ~ 현재 : 인제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축계획 및 설계, 도시설계, 도시경관